

시선

사설

PRIME사업, 고질적 문제 해결할 기회로 삼자

PRIME사업이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으로 대학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나름의 전략과 해법으로 이 사업을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역시 미래정책원을 중심으로 PRIME사업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학교 구성원 사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준비과정의 투명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PRIME사업의 취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먼저 '준비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보자.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의 수는 총 19개교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많은 대학이 준비과정 자체를 대외비 취급하며 학내 구성원들에게조차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학교 미래정책원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대학 입학정원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면, PRIME사업이 요구하는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개편'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총량을 둘러싼 학과·학부 간의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성원은 현재 아무런 관련정보도 공유받지 못하기에 그 어떤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도래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은 구성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PRIME사업의 취지 자체가 '후마타스 칼리지'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중심의 교육철학을 표방하는 우리학교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PRIME사업이 요구하는 학과개편의 지향점은 그간 우리학교가 '대학 교육의 가치와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배제했던 노선이다. 이 같은 기조를 버리고 PRIME사업을 위한 학과개편에 나선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교육관을 우리 손으로 버리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학과개편'이라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현재 맞닥뜨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을 이미 지니고 있다. 이번 학과개편을 캠퍼스 이원화 구조를 가다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복학과 논란 등으로 캠퍼스 이원화 구조가 모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학교의 상황에서는, 무분별하고 일괄적인 인원조정보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인원조정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신문이 다음호에 실릴 지령 1600호 기념 특집 기사를 준비하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 유사학과 정리를 통해서만 약 1,800명의 인원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PRIME사업을 대비하는 데 충분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인 만큼 경제 교육철학에 위배되는 방법론도 아니다. 게다가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되기에 상대적으로 '소통의 문제'와 이로 인한 '혼란의 문제'도 최소화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다음 호에서 '하나의 경제'를 테마로 한 특집 기사를 통해 이러한 방법론의 현실성과 효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타의에 휘둘리는 PRIME사업이 아닌 자의적 필요에 대응하는 학과구조개편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이기 때문이다.

국제캠 푸드코트에 대한

학생 불만 높아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1. 3 ~ 11. 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캠퍼스 우정원 푸드 코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국제캠 우정원 내 푸드 코트 논란 속 가격인상, 그 내막은?** **대학주보 온라인, 2015.11.10** 학생들은 "카드와 현금을 구분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음식의 질 대비 가격이 비싼 것 같다"와 같은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음식 가격 인상에 대해 푸드 코트 상인들은 재료값 상승이나 카드수수료와 같은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또한 푸드 코트 주인 B씨는 "우정원 내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음식 가격을 올렸지만 가격 인상 후 학생 수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가격 인상의 또 다른 이유로 임대료 인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서울캠
운행시간

수업시간과 맞지 않는
서버버스 운행시간

임하리

이주의 주제 - 캠 간 서버버스 운행 시간 문제

융·복합 인재 양성, '기본'부터 시작해야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최근 고등교육에 있어서 '융·복합 인재 양성'은 주된 화두다. 우리학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게 '학문간 융합 교육'을 가치로 내걸고 융·복합 교육을 이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융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타 계열 학과에서 이공계 학과 강의를 듣거나 다전공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학과 간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시되는 방향성과는 반대로, 다전공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들 위한 실질적인 환경이 잘 갖춰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1270번째 사연에 달린 '서울캠퍼스(서울캠) 수업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수업을 함께 수강을 하는 것은 운 좋게 서버버스 운행시간과 수업시간이 맞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댓글은 학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다수의 '좋아요'가 늘었다.

댓글을 작성했던 캠퍼스 간 다전공자 임수영(경제학 2011) 군은 "학생입장에서 등록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있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이동 수단에 대한 시간·횟수의 문제점을 토론했다. 실제로 서버버스 이용자 103명을 대상으로한 '캠퍼스 서버버

스 운행시간'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결과에서, '캠퍼스 서버버스 운행시간에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중 83.5%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캠퍼스 서버버스의 증차를 원하나'는 질문에 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인원이 전체 중 85.4%의 학생이 '원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렇듯 캠퍼스 서버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총무팀과 총학생회 모두 "업무적으로 여력이 안 돼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그 책임을 피하고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실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내부 상황과는 반대로 사회 전반의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취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공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제캠을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캠퍼스 간 서버버스 운행이 공학계열을 다전공하는 서울캠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대의 상황 역시도 현재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원수다.

학교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과거 우리신문과의 취재에서 총무팀은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불만이 크면 논의를 거쳐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던 만큼 응답 인원의 숫자는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학문 간 통합'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나가는 '변화'야말로 진정한 '학문 간 통합'의 기반이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

상을 꼽았다. GS건설이 운영하는 우정원 임대료에 대해 우정원 운영팀 윤기봉 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수한 인상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소장은 "카드결제 회피와 현금결제 강요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2기숙사 휴게실 내 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캠 제 2기숙사 휴게실 쓰레기 문제 심각... "기숙사생 모두 공동생활임을 유념할 필요"** **대학주보 온라인, 2015.11.12** 우리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밤 12시부터 1시까지의 제 2기숙사 휴게실 상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음식 부스러기, 컵라면 봉지 등이 바닥과 테이블에 버려져 있었다. 현재 제 2기숙사 휴게실에는 각 층마다 3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해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사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계속되고, 쓰레기통이 넘칠 정도의 양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제 2기숙사 사감실에 측은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거의 6,000L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주말에는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지 않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원자력 안전 연구실(Nuclear Safety Laboratory-NSL)'을 운영 중인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학생 3명이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각종 상을 대거 수상했다. **원자력 안전 연구실 교수·학생 4명,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발표회 수상/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11.10** 원자력 안전 연구실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규제를 연구하는 연구실로, 정 교수와 함께 학술발표회에 참가한 채명선(박사과정) 양, 박해군(석사과정) 군, 김수현(학부생) 양이 연구의 탁월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자력과 사회 소통상'을 수상했고, 상금 300만 원 전액을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채 양은 원자력공학 전공 여학생 중 연구업적 또는 연구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수여하는 '뤼리상', 박 군과 김 양은 우수한 문장을 받았다. 그동안 꾸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면서 방송과 신문을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알리던 정 교수는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생긴다

- 단선으로 치러지는 총학선거를 보며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자가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 대표자들이 자신이 행사할 권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과정이 바로 선거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마야흐로 2016학년도 학생회를 이끌 제48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운동이 양 캠퍼스에서 한창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대부분이 '단선'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국제캠 총학 선거를 제외한 서울캠 총학·총여 선거와 국제캠 총여 선거 또한 모두 단선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최근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흥미롭게도 선거와 시장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가 한 개의 회사에서 생산한 한 개의 제품뿐이라면 소비자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로서는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제품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유도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경쟁'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공급자가 최소한 둘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둘 이상의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장 자체에 효용이 없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아 기존 하나의 공급자만 있게 되면 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호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효용은 낮아지게 된다. 두 번째는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가 시장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독점 공급자는 경쟁자가 없어 더 좋은 품질과 더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분명해진다. 이처럼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된다면 후보자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공약개발과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공약을 내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안이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도 단선은 흥미나 관심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쟁할 상대가 없는 스포츠 경기처럼 길이 빠지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전체적인 관심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러 후보가 있으면 유권자들은 공약과 후보자에 대해 꼼꼼히 검증한 후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가 하나 밖에 없다고 그 후보가 '부실한' 후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나 또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그 선택지가 하나 밖에 없다는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만 1천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1동)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